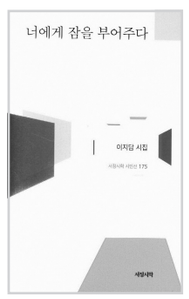
“콘텐츠개발위 꾸려 작가 영역 넓힐 것”

1987년 창립 광주전남작가회의 첫 여성회장 이지담 시인

포용의 리더십 회원 화합 도모
5월 문학제 등 내실있게 추진
최근 세번째시집 ‘너에게…’ 펴내



“여성의 장점인 섬세함이나 따뜻함으로 회원들을 품도록 하겠다. 아울러 여성성에 머물지 않고 일의 특성에 맞는 과감한 시도도 할 계획이다.”

지난 1987년에 창립한 광주전남작가회의(작가회의)에 첫 여성 회장이 선임됐다. 이지담 시인은 최근 오프라인(문자 추천)으로 진행된 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추대됐다.

축하드린다는 말에 이 회장은 “담담하면서도 어깨가 무겁다”면서도 “전체 회원들이 함께하는 작가회의로 거듭나고 싶은데 코로나로 활동이 제한돼 안타깝다”고 소감을 말했다.

그는 첫 여성 회장이기 때문에 주위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는 사실을 무겁게 인식했다. 더욱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거리두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활동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 회장은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야외에서의 자연과 어우러지는 만남 등을 조심스럽게 기획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새롭게 콘텐츠개발위원회를 구성해 지면과 활동영역을 넓힐 프로그램을 기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진행해왔던 행사도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4월 시민대학, 5월 광주항쟁 41주기 오월문학제, 여름 섬진강문화학교 등이 예정돼 있다. 특히 오월문학제는 전국에서 문학인들이 참여하는 만큼 “광주의 오월정신을 체험하고 숭고한 뜻을 가슴에 담아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일 년에 두 번 발행하는 기관지 ‘작가’도 내실있게 발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생각이다.

이 회장은 얼마 전에 세 번째 시집 ‘너에게 잠을 부어주다’(서정시학)를 펴내기도 했다. 신덕룡 평론가의 표현대로 “편안하고 정갈한 언어 속에 깃든 절절함과 스스럼없이 시인의 사유를 따라가게 하는 부드러운 힘”을 느끼게 하는 작품들을 담고 있다.

이지담 시인은 90년대 가톨릭문화아카데미에서 곽재구 시인의 시 강좌를 들으며 습작을 시작했다. 좀 더 깊이 있는 시세계에 접근하고자 광주대 대학원 문창과에 진학해 문학공부를 했다. 이후 2003년 시와사람 신인상, 2004년 서정시학 신인상을 받으며 등단했으며 2019년 미래서정 문학상을 수상했다.

시를 쓰면서 회장 역할을 수행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우려에 “작품과 활동은 관계에서 나온다”는 답이 돌아온다. 그러면서 “혼자 두문불출 글을 쓰는 작가도 있지만 다른 문인들과 교류함으로써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다”며 “나와 다른 작품세계를 보며 내 작품 방향을 잡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그가 다양한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시의 대중화를 위해 꾸린 ‘비타포엠’ 회장을 2년간 역임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의 상황을 감안할 때 영상이나, SNS를 통한 소통도 염두하고 있다. 다양한 방식의 만남을 매개로 “멈추는 시간이 아닌 함께하는 시간”으로 채워갈 방침이다.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힘든 시기를 건너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상생하는 마음으로 350여 회원들이 함께 손을 잡아준다면 더 나은 작가회의가 되지 않을까 싶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범 내려온다’ 밴드 이날치 신곡 ‘여보나리’ 발매

판소리 현대적으로 재해석

토끼의 간을 찾아 육지로 떠나려는 별주부를 아내가 만류한다. “여보 나리 여보 나리 / 세상 간단 말이 웬 말이오.”

별주부 아내의 간곡한 애원이 신나는 리듬에 얹혔다. 드럼과 베이스가 만들어내는 리듬에 몸이 절로 들썩이고, ‘여보 나리 여보 나리’가 반복되는 가사는 중독적으로 입가에 맴돈다. 애절한 판소리 대목을 강력한 ‘훅 송’으로 변신시킨 것은 역시나 밴드 이날치의 솜씨.

이날치는 판소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음악으로 지난해 ‘1일 1범’ 열풍을 일으키며 전국민적 화제를 모았다. 히트곡 ‘범 내려온다’가 수록된 정규 1집 ‘수궁가’ 이후 이들이 어떤 음악을 내놓을지도 관심이었다.

이날치가 최근 발매한 싱글 ‘여보나리’는 수궁가 이야기의 연장이자, 이들의 장기인 ‘반전의 묘미’가 십분 발휘된 노래다. 전통음악과 팝, 비극과 희극, 애절함과 흥 등 이질적 요소 사이에서 유연하게 줄을 타며 새로운 공간을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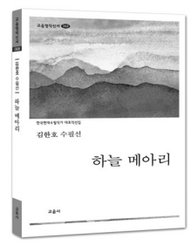
이날치의 인기는 전통음악을 둘러싼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도 받는다. 이날치를 이루는 소리꾼 4명과 연주자 3명은 대중음악계와 국악계에서 저마다 활약해왔다. 아방가르드 팝 듀오 ‘어어부 프로젝트’와 민요 록밴드 ‘씽씽’에서 활동하고 영화 ‘타짜’·‘곡성’·‘부산행’ 등의 음악감독을 맡은 베이스 장영규를 주축으로 ‘장기하와 얼굴들’ 출신 베이시스트 정중엽, ‘씽씽’의 드러머 이철희, 소리꾼 권송희·신유진·안이호·이나래가 장르의 경계를 넘어 의기투합했다.

2019년 데뷔 무대를 가진 이들의 인기는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와 협업한 네이버 ‘온스테이지’ 영상 및 한국관광공사 홍보영상을 통해 그야말로 폭발했다.

/연합뉴스

생명의 소중함·사랑의 고귀함 통해 인간성 회복

김한호 수필가 ‘하늘 메아리’ 펴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하지만 결국은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다운 삶을 상실해가면서 행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소중함과 사랑의 고귀함을 통하여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사랑과 행복한 삶을 위한 대표작선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광양 출신 김한호 수필가가 ‘하늘 메아리’(교음사)를 펴냈다.

이번 수필집은 ‘한국현대수필작가 100인선’ 시리즈 일환으로 발간됐으며 저자는 올해 68번째로 100인선에 선정됐다. 그동안 문예지나 신문 등에 발표한 작품 중 37편을 가려 뽑은 글을 수록했다. ‘사랑과 행복한 삶’, ‘전라도의 애환과 광주 5·18’,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 ‘지난날의 삶을 통한 성찰’ 등을 담고 있다.

전편에 흐르는 일관된 주제는 ‘생명의 소중함과 인간성 회복’이다. 인간이 살아가며 기본이 되는 휴머니즘, 인권, 평등을 추구하고 현대인의 자연 파괴와 생명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고등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직한 저자는 그동안 다양한 경험과 폭넓은 식견을 토대로 수필과 평론을 발표해왔다.

저자는 “30여 년간 글을 써오면서 내 자신을 깨닫게 됐고,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며, 사랑과 행복, 아름다운 자연, 이웃에 관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평론가로도 활동하는 김 수필가는 광주문협 부회장, 전남문협 수필분과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슬픈 시인의 노래’, ‘춤추는 꽃’, ‘살아있는 것들의 아름다움’, ‘수필의 이론과 창작’ 등을 발간했으며 세종문학상, 수필문학상, 국제PEN광주문학상, 아시아서석문학상 대상 등을 수상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박상희 동화작가 작품집 ‘무궁화 할아버지’ 출간

‘공존’이란 나와 타인의 존재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것이다. 행복의 원리는 공존의 미덕을 실천하는 데 있다.

공존을 주제로 하는 창작 동화집이 발간됐다.

박상희 작가가 펴낸 ‘무궁화 할아버지’(가문비 어린이)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자신들의 모습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주인공들은 부족하지만 자신들의 모습을 사랑하며 이웃과 더불어 살아간다. 만복이 삼촌과 미용실 누나, 진숙씨와 영은이, 선이와 외할아버지 등이 그들이다. 더러 자기가 속한 사회로부터 무관심 혹은 따돌림을 당하지만 서로 사랑할 때만 무력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만복이 삼촌’은 말도 더듬고 글자도 모르는 만복이 삼촌의 사랑 이야기다. 구두 수선 가게를 하는 만복이 삼촌은 말도 더듬고 글자도 제대로 모른다. 어느 날 미용실 누나가 구두를 맡기러 오자 첫눈에 반하지만 사랑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그래도 진심이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만복이 삼촌은 행복해한다.

‘행복한 십 원’은 형준이를 만나 보람된 일을 할 수 있게 된 십 원짜리 동전 이야기다. 동전은 무언가 값진 일에 자신이 쓰이기를 원하지만 불행하게도 화장실에 빠져 온갖 고생을 하게 된다. 이후 형준이에게로 가게 된 동전은 그곳에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후원 센터로 가게 된다. 비로소 동전은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며 행복해한다.

각각의 작품은 이처럼 자신을 성찰하고 남을 먼저 배려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한편 박 작가는 광주대 문예창작과를 졸업했으며 광주전남아동문학인회 백일장 대상, 목포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지금까지 장편 ‘아빠와 함께 떠나는 나주 여행’, 단편동화집 ‘이모티콘 할머니’ 등을 출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김애란 ‘두근두근 내 인생’ 아마존 선정 ‘이달의 소설’

김애란의 장편소설 ‘두근두근 내 인생’이 미국 최대 온라인서점 아마존이 선정한 ‘이달의 책’ 소설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고 출판사 창비가 16일 밝혔다.

‘이달의 책’은 아마존 에디터가 매월 선정한다. 국내 도서 중에는 앞서 신경숙 소설 ‘엄마를 부탁해’, 황선미 동화 ‘마당을 나온 암탉’ 등이 뽑혔다.

국내에서 지난 2011년 출간돼 45만부 이상 판매된 ‘두근두근 내 인생’은 미국에서 지난 1월 ‘My Brilliant Life’(김지영 옮김·Forge Books)라는 제목으로 번역본이 나왔다.

동인문학상, 구상문학상, 이상문학상, 한국일보문학상, 신동엽창작상, 이효석문학상, 김유정문학상 등을 받은 김애란의 첫 장편소설 ‘두근두근 내 인생’은 17살 나이에 자식을 낳은 어린 부모와 17살을 앞두고 조로증에 걸려 80살의 신체 나이가 된 늙은 아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중국, 베트남, 대만, 독일 등 9개국에 번역 출판됐거나 출간 계약을 마쳤다.

/연합뉴스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062.220-0551

행정심판전문행정사
행정법인 맥 행정법률사무소
북구 유동 41-6번지
행정사 김유승
☎ 062)523-5885, 010-5665-0150

평강안마지압원
북구 임동 191-13 서림초등학교 후문 앞
만성피로 및 각종 통증관리
근육통, 3차 신경통, 요통, 관절염, 좌골 신경통
국가공인안마센터
☎ 062)527-6664, 010-2645-6664

In.ssalon_sia
동구 경양로 234 그랜드센트럴 119동 807호
휴무 : 매주 월요일
영업시간 AM. 10:00 ~ PM. 8:00
☎ 062)233-1202

문화결혼상담소
북구 북동 242-4번지
초혼·재혼 상담
작명, 궁합, 풍수지리
☎ 062)529-0315, 010-3606-5632

국수나무 광주용봉점(비엔날레)
북구 용봉동 1091-4(M-타워 KB국민은행건물)
모든 메뉴 포장 및 배달가능
직접 전화 및 배달앱 주문(배달의민족, 요기요)
☎ 062)526-5475, 010-8621-5959

법무사 이영석사무소
동구 밤실로 16-1(지산동)
부동산등기, 매매설정, 상속, 증여 등 상업등기
회사설립, 임원변경등 형사, 고소장, 항고장 신청
각종가압류, 가처분, 경매, 공매 입찰 기타법률상담
☎ 062)226-7220, 010-3666-7220

보 광 세 탁 소
동구 지산1동 동명로73-2(구.농장다리앞)
각종의류세탁, 양복·양장 각종의류
수선전문업소
☎ 062)227-6815, 010-6681-5412

국수나무 광주신안점
북구 서암대로95 (신안교앞 고은@상가1층)
각종 국수와 돈까스, 각종 식사류
☎ 062)531-0331, 010-5511-0331

보물섬회 활어회 직판장
동구 산수동 556-58 (광주은행 앞)
프랜차이즈, 홀손님 환영
포장전문, 각종회 산지직송 산수직영점
☎ 062)234-8882, 010-3621-0123

석 당 화 랑
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

동 양 철 학 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식당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 062)224-7687, 010-2611-7687

필 스 제 화
동구 산수동 553-73(산수5거리 옛굴다리쪽)
구두수선 남화·여화창 굽갈이
가방지퍼수선·염색·광택
☎ 010-4755-9294

인철(仁喆)익스프레스
북구 신안동 764-10번지
포장·일반이사, 화물운송
“저층에서 고층사다리 보유”
☎ 062)572-2323, 010-9509-4422

법무사 김운희사무소
목포시 정의로26-4 법조하우스 3층
개인회생, 파산면책, 가압류, 가처분, 민사소송
강제집행, 채권추심, 부동산등기, 선박등기
법인등기, 상업등기, 신탁등기, 공탁
☎ 061)284-3005, 010-9477-4872

드림케어솔루션
동구 금남로161-11 금오빌딩 3층
의료기기 도·소매
온·냉 알칼리 이온수기
5분도쌀(황미쌀) 즉석 도정기
☎ 010-3118-5679

초 대 화 랑
동구 궁동54-2번지(예술의 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

고 전 방
동구 궁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 062)224-4869

남도철학원
북구 천변우로79번길 87(임동)
수강생 수시모집! 사주, 작명, 출산, 택일
명리비전으로 수강생 개인 지도
☎ 062)522-9653, 010-8645-2254

신 신 예 술 의 집
동구 궁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 062)222-1936

웅추해신삼계탕
북구 저불로93(용봉동3차현대아파트뒷편)
각종 삼계탕 전문식당
각종 모임 환영, 연회석 완비
깨끗하고 조용한 분위기 친절·신용·본위
☎ 062)523-1003, 010-5355-0867

제니골드(귀금속카페)
동구 충장4가 3-3
(광주 충장로 귀금속거리 사거리)
금(14k·18k·24k) 매입·판매
아메리카노, 자몽에이드, 진저라떼, 생강차
대표 박형수 ☎ 010-8619-2954

박 당 화 랑
동구 궁동 51-18번지(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 062)222-6866